

# 광부의 보건에 관한 국제학회와

## 세계보건기구전문위원회 참석보고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조 규 상

미국 핏츠버그대학에서 광부들의 보건에 관한 국제 학회가 지난 '85년 6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이어서 WHO 회의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에 열린 국제 학회는 분진의 허용기준을 처음으로 제안한 Theodore H. Hatch 교수를 기념하기 위한 학회였으며, WHO 전문위원회는 이 기간을 이용하여 광부의 보건에 관한 도서출판의 자료를 검토하고자 개최되었다.

필자는 1984년도에 규산분진과 석탄분진의 건강기준에서 본 허용기준설정을 위하여 개최되었던 WHO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바 있고, 광부들의 건강에 관한 WHO 저서를 출판함에 있어 규폐와 탄광부 진폐증의 집필을 담당한 바 있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탄광부 진폐증의 발생율과 산업재해의 원인분석에 관한 연제를 가지고 이승한 교수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다.

1차로 열린 국제 학회는 WHO와 국립산업안전연구소(NIOSH)와 산업위생학회(ACGIH)가 후원하여 4개 공산국가를 포함한 14개국에서 약 200명의 전문가가

모여 105개의 연제발표와 포스타전시회가 있었으며, 국제 학회 개최중 WHO의 El Batawi 박사는 Hatch 기념강연에서 Hatch 교수의 유해물질에 대한 인체의 양과 반응의 관계를 가지고 동서간의 허용기준설정의 차이와 그 실효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광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 진폐증을 중심으로 한 호흡기질환, 광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음 진동등에 의한 직업병과 운동기장해등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국제 학회에서 눈에 띈 것은 지하갱내 작업에 있어 디젤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오는 배기가스에 의한 건강장해와 이에 대한 대책이었다.

이색적인 것은 미국에서는 남녀 동등권이 강하여서 그런지 여자도 갱내 광부로서 일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건강이 논란되고 있는 점이였다.

또 포스터 전시에서는 웨스트버지니아대학의 대학원에서 공학박사과정을 밟고있는 김 현옥씨가 석탄분진의 새로운 측정방법을 소개하고 있어 대단히 반가웠다.

\* \* \*

광부의 보건에 관한 책자발행을 위한 W-

HO회의는 11명의 위원과 9명의 초청전문가, 8명의 서기로서 이루어져 광산의 환경, 건강장해 (호흡기질환, 공업중독과 피부질환, 운동기장해, 심리학행동과학적문제) 산업재해, 보건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집필자의 원고초안에 의하여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높은 광산재해와 진폐증 발생에 대한 근본대책이 진폐증 발효와 아울러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 \* \*

금번 국제학회가 열렸던 핏츠버그는 미국 펜실베니아 광산지역에 위치하여 철강산업

과 더불어 미국 기간산업의 중심이 되어온 곳이며, 광산산업보건의 본거지인 핏츠버그 대학의 보건대학원은 2차 세계대전직후 메톤재단의 후원으로 설립되어 6개 학과의 박사, 석사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산업보건학과는 이 중에서도 주종을 이루는 학과로서 80명의 교수진에 5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의과대학출신과 외국인은 각각 10%를 차지하며 약 절반이 여학생인 것도 특색이다. 또한 동 대학은 많은 산업체와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어 연간 6,000만불 (한화 약 500억원)의 연구비를 쓰고 있다. 이는 참으로 부럽기 한이 없는 이야기라 아니할 수 없다.

---



---

## ☞ 협회소식 ☞

---



---



---



---

### 전국특수건강진단기관장회의개최

---



---

○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 (위원장:조규상) 회의가 전국 29개 특수건강진단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85.7.12 서울 여의도 소재 전경련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금년도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및 검진기관의 운영방향에 대해 토의되었다.

○ 상반기 사업실적은 연간계획이 28%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보여 균형있는 계획검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평가되어 하반기에는 치밀한 계획과 집중적인 노력으로 누락사업장 및 근로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 한편 근로자 검진사업에 대해 최근 정

부에서는 물론 사업주나 근로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지역내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감진 실시에 중추적·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하기위해 아래와 같이 중점운영기로 협의되었다.

— 원거리 또는 검진대상자가 소수라 할지라도 직접 출장검진 실시

— 직업병 유소견자의 추적검사와 사후관리 철저

— 대상지역내 유해사업장 및 부서, 검진대상 근로자수 등 기초자료 파악 기록보존

— 수검자에 대한 검진기록 관리유지

— 검진기술정보의 상호교환, 사례연구 발표 등을 통한 진단기술향상 도모

○ 이 밖에 특수검진의 지역책임제 정착